



[산업] 삼성이 점 찍은 미래 기술 키워드는 #사회공헌 #언택트 06



[바이오] 보령제약 예산공장 생산량 3배 이상 확대 항암부문 성장 탄력 L2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제 백년대계' 그린다

포스트코로나 경제 이끌 기틀 마련 경제 트렌드·정책 진단 등 기초조사 유망업종 선정·정책 개선책 등 요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경제 백년대계 마련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1억4000만원을 들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장기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디지털 산업 가속화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제 구조 변화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한 새로운 경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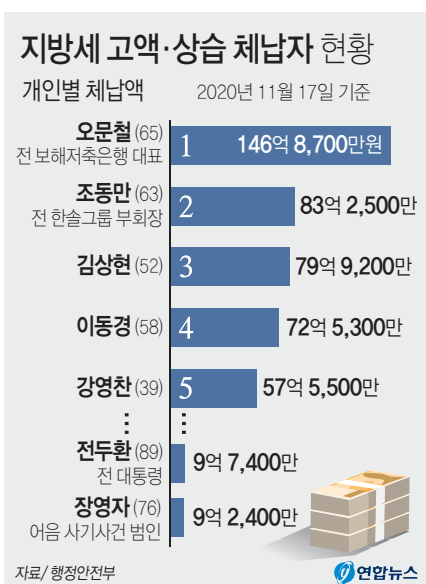
트렌드 변화 조사 ▲서울시 경제환경 및 정책 현황 진단 ▲중·장기 분야별 경제·산업계획 주요 정책 방향 분석 ▲경제정책 로드맵 설계 ▲산업별 새로운 육성 분야 발굴 ▲투자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용역사는 우선 온라인 소비 증가 같은 소비패턴과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1인가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파악하고, 해외 도시의 경제정책 성공요인과 한계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산업 동향을 살펴 유망 업종을 선정하고 서울 경제 정책의 SWOT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한다. 시는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경제 정책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또 시는 향후 경제 정책 환경 변화 전망에 따른 차별화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사는 '서울 경제비전 2030'을 포함 기준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점검하고 각 실·본부·국에서 수립한 분야별 경제·산업 정책을 분석해 장기 경제정책의 추진 방향을 잡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직면한 경제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단계별 중점 과제와 실천 전략을 담은 청사진을 제안한다. 서울시 경제정책 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사업 안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외부 전문가, 기업인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민간 경제주체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 정책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사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서울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연계성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장기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용역사는 26일 오후 6시까지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서울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중구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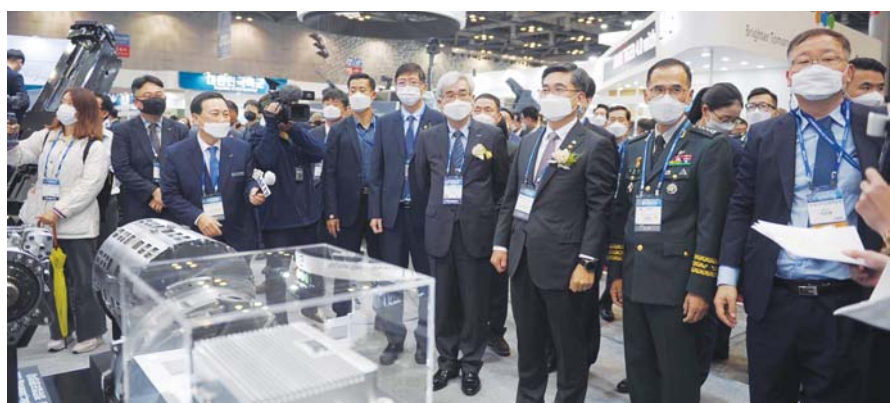
전두환·오문철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1.5만명 신상 공개 최고액 147억, 평균 체납 8000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으며,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등재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으로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곳(241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400만원으로 1년새 5000여만원 늘었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42억3400만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22억5600만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 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멸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방위산업전 개막... 첨단 무기 한곳에 S&T그룹의 주력 방산업체인 'S&T모티브'와 'S&T중공업'이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KINTEX)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0)에 참가했다. S&T그룹 전시장을 방문한 서욱(오른쪽에서 세번째) 국방부 장관, 남영신(오른쪽에서 두번째) 육군참모총장 등이 각종 신형 화기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

서울시, 쪽방촌 개선 위한 표준 평면 개발

최저 주거기준 14㎡ 이상 구상 유형은 3가지다.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거주자를 위한 1인실, 혼자 지내기 불안한 거주자를 위한 다인실, 생계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주자를 위한 특성 화실이다. 공간 크기나 유형 외에 가구, 색채, 채광, 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시는 함께 만들었다. 시는 쪽방촌을 정비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표준 평면을 먼저 적용해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000명 지원 돌파

취약 노동자 의심 증상 시 23만원 지원 전체 지원자 중 일용직 노동자 43%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12월 11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속한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난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단시간 노동자 235명, 일용직 노동자 429명,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명, 요양보호사 83명 등 총 1011

명이 2억 3253만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11월 16일 기준). 무엇보다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 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다. 도는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각 시군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성기 기자 ask9990@

파주시, '지역재활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 보건소가 '2020년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장애인 재활서비스 수행 실적,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전체적인 사업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파주시 보건소는 전국 256개 중 11개 보건소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파주시 보건소는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지 제고와 건강증진을 위해 8주 동안 각기 다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텝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재활교실 등 다방면에서 노력했으며 그 결과 2020년 경기도 멘토 보건소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9일 (목)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18~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6 | 해질 / 17:19

지역별 날씨: 연천 17/18, 동두천 16/17, 가평 15/16, 파주 16/16, 서울 18/18, 양평 16/17, 인천 17/17, 수원 18/18, 용인 18/18, 평택 17/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